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23
----------	------

발의연월일 : 2020. 7. 23.

발 의 자 : 안호영 · 송옥주 · 최중윤
양이원영 · 노웅래 · 윤미향
이주진(비) · 송갑석 · 김철민
김윤덕 · 임종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한 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어 사실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대상자(49만명)의 15.3%(7.4만 명)에 불과함.

아울러, IT산업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으로 종속성과 자율성이 병존하는 고용형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의 제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5조의2(<u>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u>) 「<u>산업재해보상보험법</u>」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u>특수형태근로종사자</u>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u>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u>」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95조의2(<u>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u>----- ----- ----- -----, <u><단서 삭제></u></p> <p>1. <u>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u></p> <p>2. 「<u>산업재해보상보험법</u>」 제124조제1항에 따른 <u>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u></p>